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 문제 인식^{*,**}

이정훈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1994년 중국이 정식으로 인터넷 시스템에 편입된 이래 인터넷 토론 공간은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논의를 조직하는 공간으로 발전해왔다. 북한 및 북핵 문제 역시 중국의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다. 대표적인 인터넷 토론 공간인 텐야(天涯, tianya.cn), 몐(猫扑, mop.com), 우어우즈샹(烏有之鄉, wyzxwk.com)에서 진행된 북한 관련 토론은 각 사이트의 성격과 주 이용자층의 차이에 따른 특성을 보여준다.

고학력 이용자가 많은 텐야의 토론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양상을 보여주며, 일부 사례에서는 중미관계, 동아시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심도와 전문성이 드러난다.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표방하는 몐에서의 토론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 특유의 흥미 중심적·탈이념적 접근 태도를 보여주며 대체로 부정적인 북한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의 북한 여행기 등 직접 체험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함으로써 편향된 북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동시에 발견된다. 마오주의 좌파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우어우즈샹의 관련 논의는 북한을 중국이 잃어버린 사회주의적 과거를 투영하여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인식의 스펙트럼과 내부적 논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는 데 공개된 것, 공식적인 것의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이고 잠재적인 입장에 관해서도 유의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주제어 북한, 북핵, 중국 인터넷, 텐야, 몐, 우어우즈샹

I. 들어가며

이 글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인식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토론 공간은 그 익명성과 실시간적 정보소통 가능성 등의 특징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구분되는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과제 지원(0563-20160001)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본 연구는 2017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SNUAC-2017-001).

다양한 목소리를 접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과 시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현재 동아시아 지역을 통틀어 가장 민감한 국제 문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각종 정치적·외교적 고려를 거쳐 공표되는 것과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론은 비교적 여과 없이 다양한 비공식적 시각을 폭넓게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의 유명 인터넷 토론 사이트(게시판)의 토론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소개하고 관련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보다 스펙트럼이 훨씬 넓은 중국 국민들의 인식에 접근하고자 한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총수는 35억 명으로 추산되어 전 세계 인구의 47%에 해당되고, 이 가운데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7억 2,10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이며 인도와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¹ 중국은 또한 막대한 숫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2016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한 보고²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사이트의 총수는 454만 개에 달하며 이는 2015년 12월보다 7.4%가 늘어난 숫자다. 이처럼 방대한 사용자 및 사이트 숫자, 그리고 엄청난 양의 게시물 및 조회 수, 댓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인터넷에서의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조사는 정량적 접근이 상당한 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샘플링을 통한 질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텐야(天涯, tianya.cn), 몹(猫扑, mop.com), 우여우즈샹(烏有之鄉, wyyzwx.com) 등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토론 공간을 대상으로 최근 몇 년간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높은 조회 수와 댓글, 좋아요 등의 반응이 달린 게시물 가운데 각 사이트의 특징을 대표하는 게시물을 선정하여 본문과 댓글의 논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한편, 반응 양식, 선호 여부(동의/반대 표시 등)를 분석해 중국 네티즌의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시각의 일단을 드러내고자 한다.

¹ <http://tech.hexun.com/2016-09-17/186058570.html>(검색일: 2016. 12. 29)

² <http://www.askci.com/news/hlw/20160803/17564949968.shtml>(검색일: 2016. 12. 29)

II. 인터넷 토론 공간의 확장과 북핵 문제의 대두

1. 인터넷 토론 공간의 확장

권위주의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중국의 사회체제 속에서 인터넷은 사회적 소통의 창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체제에서 언론이나 미디어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기보다 전통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선전(propaganda)’이라는 범주하에서 당과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미디어 관에 수정을 가한 것은 개혁개방을 계기로 한 일련의 변화 때문이었다. 1978년 중국공산당 중앙 기관지 『인민일보』에 대해 기업형 관리를 내세워 독자 사업단 위로의 분리 조치가 취해졌고, 1979년 이후에는 미디어에서의 상업적 광고가 허용된 이래 미디어는 차츰 일방향적 선전수단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천안문사태 및 그로 인한 서방세계의 중국 봉쇄정책 직후인 1993년에는 미디어가 갖는 이중적 신분, 즉 정부의 ‘사업단위’이자 이익과 손실을 독자적으로 책임지는 ‘경영 단위’로서의 두 측면에 좀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더는 국가의 예산으로 당과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리추구 단위로서 미디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기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상업적 미디어로 자신을 개조할 필요성이 전면에 대두된 것이다. 이런 미디어의 상업화 현상은 정부의 지도를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온 관행을 변화시킴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언론환경의 의사-민주화적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1993년의 미디어 개혁 조치로 전통적 미디어의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으로의 변모 양상을 초래한 것과 더불어 인터넷의 등장은 사회적 소통의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4년 4월 20일 중국은 미국의 통신 기업 스프린트(Sprint)를 통해 국제인터넷망에 접속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인터넷 개통국이 되었다. 대안적 소통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95년 5월 『인민일보』의 인터넷 사이트(런민망 人民網)에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에 대한 나토의 폭격에 항의하는 시사논단이 만들어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사논단에는 사건 발생 후 40여 일 동안 9만여 개의 글이 실릴 정도로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의견 표출의 위력을 드러냈고, 이후 이 게시판은 별도로 독립하여 강국논단(強國論壇)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다(이민자, 2011).

이 재(在)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 피폭 사건은 미국과 유럽 강대국의 횡포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의 성격이 있기에 일정하게 관방적 색채를 띠고 있었고, 정부의 입장에서든 환영할 만한 사건이었지만, 2003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쑨즈강 사건(孫志剛事件)”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이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여론 형성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의 의미에 주목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최은진, 2013). 후베이(湖北)성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저우의 한 기업에 취직한 쑨즈강은 2003년 3월 17일 퇴근 후 PC방에 가는 길에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안(경찰)에 의해 유량인 수용소로 보내진 후 그곳에서 석연치 않게 사망한다. 『난팡메트로신문(南方都市報)』에 쑨즈강의 석연치 않은 죽음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시츠후통(西祠胡同, www.xici.net) 등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비등한 인터넷 여론의 힘은 한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움직여, 이 문제가 전인대의 정식 의제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임시거주증, 검문, 유량인 수용소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규를 개정하게 한 결과를 이끌어낸다(이민자, 2011).

이 밖에도 인터넷이 개혁개방 시기 중국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전달하는 사회적 소통의 주요한 통로로 자리를 잡게 된 여러 계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베이징대 여학생 사망 사건, BMW 사건, 색계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베이징대 여학생 사망 사건은 2000년 5월 베이징대학 여학생이 새로 생긴 캠퍼스가 있는 베이징 외곽 창핑(昌平)에서 수업을 마치고 학교 버스가 끊겨 기숙사가 있는 하이디엔(海澱) 캠퍼스까지 늦은 시간에 도보로 돌아오는 길에 피살된 사건이 있었다. 이를 학교 당국이 은폐한 정황이 베이징대학 내부 BBS를 통해 폭로되고, 이에 학생들의 집단적 항의가 온라인을 통해 외부로까지 확산된 끝에 학교 당국의 공식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BMW 사건은 2003년 헤이룽장성의 농촌에서 양파를 싣고 오던 경운기가 마주 오는 승합차를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리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정차해

있던 BMW의 사이드미러에 양과즙이 묻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BMW에 타고 있던 30대와 40대의 두 자매가 경운기에 타고 있던 농민 부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자, 주위 사람들이 이를 말리며 비난하자 농민 부부에게 차를 돌진해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주위에 있던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후 사고를 일으킨 BMW 운전자는 병보석으로 바로 풀려났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개혁개방 이후 증가일로에 있는 도농격차, 빈부격차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결합되어 이 사건을 일으킨 자매와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이민자, 2011).

‘색계(色/戒) 논쟁’은 2007년 타이완 출신 할리우드 감독 리안(李安)이 중국의 유명 작가 장아이링(張愛玲)의 원작소설을 바탕으로 항일전쟁 시기 친일 왕징웨이(王精衛) 정부의 고관에게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여 암살을 시도하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다. 이 영화는 개봉 초기에는 파격적 노출과 내용의 선정성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높았으나 좌파 성향의 인터넷 토론 사이트 우여우즈샹이 이 영화를 “한간문화(漢奸文化, 매국노문화)”의 소산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좌우 간의 격렬한 이념충돌로 번지게 된 사건이다. 영화에 대한 해석을 매개로 개혁개방 이후 누적되어온 좌우 간의 사상적 균열이 확대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비판 및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단지 공산당 및 정부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항의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서 이념의 문제를 둘러싼 민간 내부의 격렬한 의견 충돌의 영역까지 담아내는 수준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다(임우경, 200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의 인터넷 공간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과 여론 형성 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왔다. 북한 및 북핵 문제 역시 중국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슈로서 인터넷 공간에서 토론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제5차에 이르기까지 핵실험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발벗고 나섰으나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한 및 북핵 문제는 중국 인터넷 토론 사이트 내에서 꾸준한 토론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은 이 문제에 대한 중국 내부의 논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이 주변국을 생각하지 않고 핵 개발 노선

을 강경하게 지속할 경우, 중국 역시 더는 북한을 비호(庇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른바 ‘북한포기론’이 중국 학계 및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동북아의 지정학적 갈등을 한·미·일 동맹 대 북·중(러) 동맹의 대결 구도로 이해해온 전통적 관점이 도전받게 되었다. 이는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핵심적인 국가 아이덴티티로 삼아온 중국이 더는 북한을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관점으로 조건 없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과의 이러한 ‘선긋기’는 내부적으로 ‘혁명 서사’ 및 ‘사회주의 전통’을 자국의 국가적 정체성의 중핵 요소로 삼아온 중국 내부의 관행에 대한 자기 반성적 점검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2.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 문제의 확산

북핵 위기에 관한 사회적 쟁론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주장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어려운 중국의 언론 여건상 주로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산되었지만, 주목도와 신뢰성이 높은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몇몇 강경론자의 북한포기론이 등장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3차 북핵 위기 이후 중국 네티즌들의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인터넷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 논자들로는 장롄구이(張璉瑰)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덩위윈(鄧聿文) 중앙당교 『쉬에시스바오(学习时报)』 부주간(副編審), 양쥘핑(楊俊鋒) 베이징 텐저경제연구소(天则经济研究所) 특약연구원을 들 수 있다.

중국 내부의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희옥에 따르면 크게 6개로 나누어볼 수 있다(이희옥, 2016). 이는 다시 무조건적 대북 지지와 북한 포기라는 극단적 입장과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혹은 절충적 입장이라 할 수 있는 현상유지파, 제한적 제재론, 엄중한 제재론 그리고 현실주의적 접근론의 네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장롄구이는 엄중한 제재론자에, 덩위윈과 양쥘핑은 북한포기론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현상유지파, 혹은 제한적 제재론에 가까운 중국 외교 당국의 공식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온건한 접근 대신 북한에 엄중한 제재 혹은 포기를 주장하는 논의를 들고 나오으로써 북한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는 한편, 이와 관련된 인터

넷 여론의 확산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장렌구이는 김일성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중국 내의 손꼽히는 북한전문가며,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생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 중 하나인 중앙당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가 흔히 생각하듯, 미국과의 담판(북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며, 1965년 소련과의 비밀 접촉을 통해 최초로 핵 개발을 타진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해온 북한 당국의 일관된 정책이며, 이런 북한의 핵 보유 시도가 중국의 국가안전에 가하는 중대한 위해성에 관한 주장을 펼쳐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중국 내 인터넷 여론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2012년 2월 잡지 『링다오저(領導者)』³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장렌구이는 현재 중국이 처한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력에 기초한 위협과 핵전력에 기초한 위협으로 대별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등 대국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주변 상황에 놓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전쟁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국과의 충돌이 가져올 안보상의 위험보다 핵을 보유한 주변 소국과의 충돌 상황이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킨 바 있다(張璉瑰, 2012).

이어 장렌구이는 2015년 8월 6일 인터넷신문 『핑파이뉴스(澎湃新聞)』(www.thepaper.cn)에 기고한 “북한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황진하 한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방문 중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발언에 관한 논평을 통해 핵 보유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실제 의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張璉瑰, 2015).

북한에 중국의 핵우산 제공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군사적 목적의 위성 발사를 중국이 대행함으로써 탄도탄 개발에 대

³ 이 잡지는 2005년 홍콩의 『차이징원자이(財經文摘)』 잡지사에 의해 창간되어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국어권에서 폭넓게 배포되는 잡지다. 이 잡지는 독특한 유통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배포 범위(자격)를 고급관료(각 성의 부장급 이상, 중앙기관 국장 이상, 각 지급시의 시장 이상) 및 특대형기업의 CEO, 다국적 기업의 중국 지역 책임자,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 중장 및 일부 소장 이상의 군급 간부, 주중대사관 및 영사관의 주요 간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증자와 수증자를 지명하면 잡지사의 자격 심사를 거쳐 기증자의 명의로 수증자에게 배포되며, 개별적 구독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며,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에 남북한 정상을 초청하여 베이징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고, 현재 남북 간의 직접 무역이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이 중간에서 3각 무역 형식으로 남북한 경제 교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황진하 국방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장롄구이는 비록 이러한 제안이 선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북한은 핵개발을 일종의 만능열쇠로 인식하고 있는데, 첫째, 강성대국의 증표로서 핵을 개발하여 민심 이반을 방지하는 한편, 정권 공고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둘째, 핵외교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셋째, 핵전쟁 불사 등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는 수사를 통해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있어 무력을 기반을 둔 주도권 장악에 활용하고, 넷째, 주변 강대국의 전략무기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도 활용하려는 종합적 활용 범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장롄구이는 황진하 위원장의 외부 역량에 의한 핵우산 제공 등 군사적 보호라는 발상에 대해 북한이 1955년 12월 “연안파의 중파주의”를 숙청한 후 내건 사대주의 배격 및 주체노선의 천명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일관된 외부 세력의 간섭에 대한 배제 원칙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일관되게 핵 보유 문제가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천명해왔으며,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위성 자체가 아닌 발사에 그 핵심 목적이 있는 것으로 10,000킬로미터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대륙간 탄도탄 보유를 통해 핵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북핵 개발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이다. 장롄구이는 2015년 8월 31일 홍콩 피닉스위성TV(鳳凰衛視)의 <오늘의 뉴스평론(新聞今日談)>에 출연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의 영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불량국가를 더는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張璉瑰, 2015). 중국 내에서 ‘북한통’으로 알려진 김일성대학 유학 경험이 있는 장롄구이의 이러한 ‘반북’적 주장은 한국전쟁 이래 ‘혈맹’관계에 기반해 북한에 동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장롄구이에 의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13년 중앙 당교 기관지이자 당교의 이론적 방향을 대표하는 주간매체 『쉬에시스바오』의 부편집장인 덩위원의 서방 매체 기고를 둘러싼 논란 당시 이미 그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덩위원은 2013년 2월 27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Financial Times)』에,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중국이 북한의 김씨 세습왕조와의 오랜 혈맹관계를 재규정해야 할 좋은 기회가 왔음을 말해준다는 취지의 칼럼을 기고하여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덩위원은 첫째, 세습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혈맹관계는 이미 시효가 지난 일이고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둘째,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차이는 이미 중국과 서방의 차이보다 간극이 더 큰 상황이다. 셋째, 일단 북한이 핵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그 종잡을 수 없는 세습정권의 속성상 중국에 커다란 위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종합할 때, “중국은 제3차 핵실험을 빌미삼아 북한을 내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이후 덩위원은 『쉬에시스바오』의 부편집장직에서 물러나 ‘자유기고가’ 신분이 되었다. 중국 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 발표한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권의 유산”이라는 글⁴에서 정치개혁 및 민주화의 지지부진, 사회 도덕체계의 붕괴, 이데올로기적 파산, 가족계획 및 호적제도의 강제 집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여 중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에서 정직 상태에 있던 중,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북한 관련 기사로 사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⁵

북한포기론을 전면에 내세운 담론은 이후에도 다시 등장한다. 2014년 7월 시진핑의 한국 방문 직후 텐저경제연구소 특약연구원 양진평(楊俊鋒, 2014)은 『파이낸셜타임스』 중국어 사이트에 “중국은 마이너스 자산인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덩위원의 주장을 좀 더 강력한 형태로 반복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는 우선 시진핑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 데 특별한 의미를 강

⁴ <http://www.chinaelections.org/article/1779/226783.html>(검색일: 2016. 12. 28)

⁵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002259100015>(검색일: 2016. 12. 28)

조하면서, “이는 북한을 멀리하고 한국을 가까이하겠다는 신호를 매우 분명하게 보낸 것으로, 중국과 세계가 이에 대해 갈채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북한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마이너스 자산’이므로 진작에 이를 내려놓아야 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북한이 전략적 차원에서 마이너스 자산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도 막대한 무역고를 자랑하는 한국과는 비교 불가의, 폐쇄적이고 낙후되어 있으며 신용과 규범이 상실된 불량한 무역상대국일 뿐인 “대중무역에 있어 ‘블랙홀(黑洞)’과 같은 존재라고 피력한다. 또한 최근 북한이 외화 획득을 위해 마약류와 위조지폐를 유통시킴에 따라 동북 지역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핵실험에 의한 핵 오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덩샤오핑 이래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실용주의에 근거해 마이너스 자산인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핵실험 등의 책동에 대해 외교적·경제적 내지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붕괴 시 예상되는 북한 이탈주민의 중국 진입을 대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2013년 덩위원, 2014년 양진평 그리고 2015년 장렌구이로 이어지는 엄중제재론 혹은 북한포기론의 등장과 확산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중국 내에서 ‘북한을 버릴 것인가’의 여부를 둘러싼 열띤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수렴되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 토론 공간이라 할 수 있는 텐야, 뭉, 우여우즈샹의 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토론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네티즌의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인식과 토론 양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I.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 관련 토론

1. 텐야의 사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토론 공간으로 텐야서취(天涯社區)를 들 수 있다(최은진·김판수 2013). 텐야는 중국에서 인터넷이 확장되기 시작하던 1999년 창립 이후 사회 문제에 관한 논쟁, 인터넷 문화 등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창립 직후 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를 표현하는 창구로 기능하기도 했고, 2000년에는 당시 중국 지식계의 화두였던 신좌파-자유주의 논쟁을 인터넷으로 끌고들어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오프라인에서 대표적 지식인 잡지였던 같은 제호의 『텐야』와 협력 브랜드로서의 제휴를 맺어 오프라인 잡지의 주요 내용을 온라인에 소개하는 등, 타깃 이용자층인 고학력, 중산층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콘텐츠의 생산 및 의견 교환을 주도하여 해당 업계의 선두주자로 일찍 자리매김했다. 상업화한 대규모 포털들에 비해 이용자 수나 조회 면에서 현저히 열세인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는 진지한 토론이라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우선 텐야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최은진·김판수 2013, 허진 외 2013).

텐야에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해당 사이트의 ‘국제관찰(國際觀察)’란에 올라온 총 154만 개의 게시물 가운데 북한을 지칭하는 중국어 “朝鮮”을 포함한 게시물 중 1만 뷰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것만도 1,400여 개에 달한다. 그 가운데 최고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은 “북한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에 관한 북한 문제의 진상, 단독 내막, 모든 궁금증이 풀리다(朝鮮問題的真相, 独家内幕, 百谜皆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262만여 회의 조회 수와 1만 1,400여 개의 댓글을 기록하고 있다.⁶ 북핵 문제 역시 관심이 높은 주제인데, 국제관찰란에서 ‘북핵(朝核)’이라는 키워드로 조회되는 게시물 가운데 조회 수 1,000회 이상을 기록한 게시물만 117개에 달하며, 그 가운데 최대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은 “박근혜가 말한다: 내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북

⁶ <http://bbs.tianya.cn/post-worldlook-1276608-1.shtml>(검색일: 2016. 12. 30)

핵 문제에 있어 나는 너(중국)를 믿지 않는다!(朴權惠说: 别恨我部署萨德! 在朝核问题上, 我不信任你了!)”⁷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17만 회 이상의 조회 수와 1,900여 개의 댓글 수를 기록하고 있다. 텐야는 중국에서 인터넷 보급 초기에 형성된 토론 공동체인 만큼 특정한 이념적 성향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단일하고 폐쇄적인 토론 공동체로서의 특성은 약한 반면, 그 양과 질에 있어 다양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텐야의 게시판 역시 중국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들이 흔히 그러하듯 오프라인 미디어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제(패오기)하거나 시사 문제에 관한 소박한 수준의 논평을 담은 게시물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3년 2월 14일 ‘zhaojwhr’이라는 이용자가 게시한 “북핵 문제로 인해 중국은 모처럼 좋은 카드를 손에 쥐게 되었다!(朝核问题让中国拥有了一副难得的好牌!)”⁸라는 게시물은 다른 게시물과 달리 북한 및 북핵 문제를 전략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고헤력 이용자 중심의 고급정보 교류 공간으로서의 텐야의 성격, 즉 심도 있는 토론 전문 사이트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이다. 2016년 말까지 총 3,100여 회의 조회 수와 50여 개의 댓글 수를 기록한 이 게시물은, 다른 게시물의 댓글들이 본격적으로 논리를 갖춘 찬반 논쟁보다는 단순한 감정적 호오(好惡)나 지지 여부를 표현하는 것에 치우치고 있는 것과 달리 댓글 토론의 형식으로 해당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게시물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정부의 검열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내 사회, 정치 문제를 다루는 게시판에서의 토론과 달리 국제 문제를 다루는 게시판에서 텐야의 몇몇 유명한 논객은 공개된 것이기는 하지만 고급정보의 재구성과 수준 높은 논리 구사를 통해 권위를 획득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들은 하나의 게시물에 방문자의 댓글과 스스로 댓글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몇 년에 걸쳐 수백 페이지의 분량으로 유지하기도 하는데, 유독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텐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게시물이 드문데 ‘zhaojwhr’란 이용자의 게시물이 비교적 텐야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형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원 게시물의 저자는 우선 이명박과 오바마 한·미 두 지도자가 제3차 북한 핵

⁷ <http://bbs.tianya.cn/post-worldlook-1720659-1.shtml>(검색일: 2016. 12. 30)

⁸ <http://bbs.tianya.cn/post-worldlook-681726-1.shtml>(검색일: 2016. 12. 30)

실험과 관련하여 통화를 했다는 피닉스TV(鳳凰衛視)의 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서두를 시작한다. 이어 미국이 핵실험 당일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 이후 미국 주도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이 발표된 것 등의 사실을 열거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핵실험이 악재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호재이며, 중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쥐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저지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요구하는 만큼, 북핵 문제에 관한 협상을 통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문제 및 기타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과 연관된 문제에서 미국의 상당한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게시물의 필자는 북한이 개발한 핵이 장차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거론하며, 북한이 적의를 가진 우선 대상이 미국과 한국이며 북한이 설사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 보유량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중국을 우선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위협론을 일축한다. 그는 또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한의 핵실험 반대 성명에 대해서는, “중국에 백해무익한 조치이며 사실상 미국의 부역자 노릇을 한 것으로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알보게 하는 동시에 북한의 원한을 사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지금 중국에 절실한 것은 북한 핵실험 강행이 낳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에 얻게 된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 여부를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상과 같은 원글의 주장에 대해 댓글에서는 뜻밖에도 동의와 지지를 표현하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했다. 그 밖에 “좋은 팬지 나쁜 패인지는 1년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중국은 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이 모자란다”(觀光团吃大便)⁹는 관망 의견이나 “중국은 책임을 져야 하는 대국이지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하는 소국과 다른 입장이며 패권 노선으로 일관해온 미국과는 더더욱 다르다. 좋은 패나 나쁜 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동아시아 평화, 안정을 촉진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일부의 비판적 혹은 회의적 반응도 없지 않았다.

⁹ 괄호 안은 아이디명, 이하 동일.

지식인 토론 공간으로서의 텐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은 ‘虫虫小非’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이용자의 댓글이다. 이 이용자는 원글 이상으로 상세한 이 댓글을 통해 원글에 대한 보충과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다. 이 댓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 역시 미국과 더불어 북핵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는 지적, 둘째, 대북 압력 행사 여부를 떠나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 대한 엄밀한 주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중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이른바 ‘외과수술식 타격’ 등의 물리적 수단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셋째, 북한 내부 불안정 국면의 확대 등의 기회를 엿보아 김정은 정권의 붕괴 및 이후 북한 정권 관리 문제를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이상의 주장은 익명의 네티즌의 의견이지만 중국 정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 표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대담하고 수위가 높은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용자는 중국이야말로 북한 제재 문제에 있어 미·일·한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동시에 북한을 직접 제재할 수단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위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나라들이 결코 중국에 앞서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대북 제재의 중국 주도권), 둘째, 대북 제재 문제의 협의를 원하는 국가는 반드시 (중국이 제시하는) 6자회담 틀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중국은 차라리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셋째, 제재 여부와 별도로 북한의 핵 능력 발전 수준에 대한 북한과의 별도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북핵을 중국의 실질적 통제하에 두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의 논의가 대중의 상식적인 반응 이외에도 우리의 상식적 기대를 크게 웃도는 국제정세에 대한 식견, 전략적 판단 능력, 정보 접근 능력 등을 두루 포괄하는 높은 수준에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폐쇄적인 중국의 언론환경에서 이러한 대담한 논의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토론참여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매체의 속성을 잘 활용함으로써 공식적 논의의 과정에서 작동하는 정보의 통제 및 각종 정치적 금기나 외교적 고려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몐과 즈후의 사례: 젊은 세대의 흥미 위주 혹은 실용적 접근

몐(MOP, 猫扑, mop.com)은 1997년 출범 당시 게임 및 TV 프로그램 등에 관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커뮤니티로 출발하여 현재는 1억 3천만 명의 등록자 수를 자랑하는 중국어권 최대 규모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포털로 자리를 잡은 중국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다.¹⁰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중국 인터넷의 최신 유행을 주도하는 사이트답게 평균 연령 18세에서 32세 사이 사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 네티즌들의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견해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몐에서도 여타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각종 북한 및 북핵 관련 게시물들도 ‘퍼오기(转载)’의 형식으로 게시판에 등장하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많고 호응도도 그리 높지 않다. 북한 관련 뉴스가 몐 게시판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2015년 한국에서도 한때 인구에 회자된 바 있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대한 고사포를 이용한 처형 사건¹¹과 같은 강한 자극성과 화제성이 있어야 한다. 이 소식은 관련 동영상과 더불어 몐을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널리 퍼졌고 나중에는 한국에 까지 전파되어 일부 국내 매체가 정식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¹² 이 소식은 후에 오보로 밝혀졌는데, 첨부된 동영상 역시 2013년 IS가 공개한 포로 처형 장면이 중국 네티즌에 의해 “현영철 고사포 처형 장면”으로 제목을 바꾸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¹³

북한 문제에 대한 흥미 위주의 접근 성향은 몐에서 높은 관심을 끈 다음과 같

¹⁰ <http://help.mop.com/about.jsp>(검색일: 2017. 7. 10), http://baike.baidu.com/link?url=ftHfFk1Zc_ygMZKoYmbPP__app8puT7Oi_GsvXl8yZdJxYAzlOshC8F6NGhGs2emixKMeAF4l870oWUVjeKlJQK(검색일: 2017. 7. 10).

¹¹ “북한 제2인자의 대포처형 현장 동영상(朝鲜二号人物炮决现场动图)”, <http://dzh.mop.com/49094785>(검색일: 2016. 12. 30)

¹²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를 통해 황병서와 현영철의 숙청 사실 및 고사포 뉴스가 흘러나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http://sports.donga.com/Enter/3/02/20150513/71222250/2>(검색일: 2016. 12. 30)

¹³ 중국 웨이보를 통해 퍼진 고사포 처형 및 장성택에 대한 사냥개 처형이 미국 공영방송 NPR 및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오보임이 밝혀진 것에 관해서는 다음 국내 기사 참조. <http://www.fnnews.com/news/201505221052590001>(검색일: 2016. 12. 30)

은 게시물의 제목을 일별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 인터넷의 비밀을 들추다: 오직 28개의 인터넷 사이트만 존재(揭秘朝鲜互联网: 只有28个网站),”¹⁴ “탈북자 불법 월경 시 아편 휴대로 인한 동북 3성의 마약 범람(朝鲜人非法越境携带鸦片, 东北三省朝鲜毒品泛滥),”¹⁵ “북한의 사기 행위를 막으려면 대북한 투자를 중단해야(应对朝鲜的诈骗行为, 我们得停止对朝投资)”¹⁶ 등의 게시물은 북한의 폐쇄적 인터넷 환경, 탈북자를 통한 마약 확산, 국제 거래에 있어 신용 결여 등 젊은층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상에 호소하는 게시물들을 통해 낙후성과 소통 불가능성 등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이는 이들 세대가 북한을 흥미롭긴 하지만 정치적 폐쇄성과 경제적 낙후성 등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기괴한 이국(異國)의 이미지로 상상하는 현실을 짐작케 한다.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가십성 게시물들을 제외하면 몸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게시물들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담고 있는 흥미 위주의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젊은층의 북한에 대한 인상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어떤 이념적 선입견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자극적 흥미에 치우친 기사들과 달리 몸 특유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면서도 실용적 관심에 입각해 개인적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논의의 사례로 ‘북한 관광 정보 공유’와 관련된 게시물을 들 수 있다. 북한 특유의 폐쇄성은 다른 한편에서 북한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어 ‘신비의 나라’를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관광으로 이어진다(주윤정, 2017). 중국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자극적 흥미 중심의 북한에 대한 ‘소비’가 역설적으로 북한에 호기심을 낳고, 젊은 세대의 관심과 맞물려 저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는 현실적 해외관광 대상지로서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관광 관련 게시물은 자극적 흥미 위주의 기사들과 함께 몸 게시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북한 관광 갈 때 꼭 알아야 할 아홉 가지(몰랐다면 큰일 나는 것 포함)”라는 게시

¹⁴ <http://dzh.mop.com/50357115>(검색일: 2016. 12. 30)

¹⁵ http://tt.mop.com/16273890_0.html(검색일: 2016. 12. 30)

¹⁶ http://tt.mop.com/16273822_1.html(검색일: 2016. 12. 30)

물¹⁷은 몫 이용자의 대다수인 젊은층의 관심에 부응하여 북한 관련 게시물 가운데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 2014년 5월 12일에 게시된 이래 2016년 말까지 무려 13만 9천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핸드폰, 망원경, 북한 화폐, ‘반동적 내용’의 서적 및 외국 신문·잡지, 미국 및 한국의 국기와 휘장 등 금지물품, 북한 지도자의 동상 앞에서 포즈를 흉내내는 것, 북한 주민과의 허가 없는 접촉 및 사진 촬영 요구, 야간에 숙소 무단이탈 등의 금기사항, 여행단의 가이드 외에 행동을 감시하는 ‘안전요원’이 별도로 배속되어 있다는 점 등 북한 여행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달린 다양한 댓글을 통해 우리는 몫 이용자들의 북한에 관한 다양한 반응을 엿볼 수 있다.

“직접 한 번 가서 봤으면 좋겠네. 우리의 과거를 체험해보고 오는 거잖아”(shanghai666), “거기 자연 풍광은 어때?”(暗-星)와 같이 북한에 대한 호의적 관심을 표현하는 댓글도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의 댓글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텐야의 경우와 상반되는 점이다. “진짜 번거롭구먼. 안 가고 말래!”(鬼渊之鬼凤), “허접한 동네에 뭐 볼 게 있다고”(익명), “미쳤어? 밥 먹고 할 일 없이 거길 가다니 정말 돈 쓸 곳이 없나 보네”(익명), “자학하고 싶으면 북한을 가야겠네”(익명) 등의 댓글은 북한 관광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례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낙후된 농촌에 가서 뭐하려고? 다녀와서 그래도 외국여행 다녀왔다고 하려고?”(handapeng0105), “누가 이런 독재국가에 가겠어, 병신이야?”(柠蜜龙幸), “자유도 없는 나라에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梓树的俊梢), “머리에 총 맞은 인간이나 그런 X 같은 델 가지!!! 전 세계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10대 공포의 장소 가운데 여기가 분명 1등일 걸”(修身不养性), “여기로 여행가는 건 감옥 가는 거랑 다를 것이 없을 듯”(星辰的北极星)과 같은 댓글에서 볼 수 있듯 회의적 시각을 넘어 노골적인 부정과 경멸의 감정이 거침없이 표현되기도 한다. 몫을 이용하는 젊은 네티즌의 상당수가 갖는 북한에 대한 인상은 ‘낙후’와 ‘독재’, ‘깡패국가’, ‘자유가 없는 나라’, ‘공포의 장소’ 그리고 ‘감옥’ 등과 연결되는 것이다.

몫 사이트 외에도 북한 관광에 관련된 정보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다. 과도하

17 <http://dzh.mop.com/47237429.html>(검색일: 2016. 12. 30)

게 말초적 흥미 중심으로 흘러가는 중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최근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즈후(知乎 www.zhihu.com)는 한국의 네이버 지식인과 유사한 형식의 질의응답 전문 인터넷 사이트로서 흥미 위주의 상업적 인터넷 여건 속에서 양질의 정보공유를 표방하며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몸 게시판에서 다루었던 북한 여행 관련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좀 더 심화되고 확장된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⁸ 이들이 사진과 함께 올린 상세한 북한여행기는 어떤 외부 미디어보다도 자세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북한의 내부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들이 올린 여행기에 달린 활발한 댓글을 통해 관련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zp1975’라는 이용자의 댓글은 원글¹⁹이 소개한 북한 입국 시 핸드폰 등을 소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이거 규정 바뀐 지가 언젠데요. 작년(2013년) 1월 1일부터 핸드폰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이젠 그렇게 엄격하게 검사도 안 해요. (추신) 작년 10.1 국경절 연휴에 내가 다녀왔음”과 같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규정 변경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댓글의 “관광일정 중에 자유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면 북한 가서 거기 아가씨들 얼굴 쳐다볼 기회도 없겠네”(我要奶酪)란 글에도 곧바로 “북한 호텔에 외국 관광객 상대 유흥시설 다 갖춰져 있어요. 카지노도 있고 여성 접대원도 있어요. 다들 알면서…”(lucksures!)와 같은 답변이 등장한 것도 유사한 사례다. 같은 게시물의 댓글 형식으로 ‘Yichi ZHANG’이라는 아이디의 필자는 2015년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상하이 출발 항공편을 이용한 북한 여행 경험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댓글로는 2016년 11월 28일자로 ‘Smiles兩田小卷儿’이라는 사용자가 자신이 2016년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북한을 여행한 경험을 “북한, 내가 그 베일의 한 끝을 가볍게 걷어 올린 나라!(朝鮮, 一个被我轻轻撩起面纱一角的国家!)”라는 제목으로 역시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의 북한 여행 경험 공유 게시물은 북한의 내부 사정을 어떤 외부 미디어보다도 자세히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소개함으로써 중국 네티즌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일정하게 중립화시키는 효과

¹⁸ <https://www.zhihu.com/question/20158971>(검색일: 2016. 12. 30)

¹⁹ <https://www.zhihu.com/question/22153371>(검색일: 2016. 12. 30)

를 갖는다.

3. 우여우즈샹의 사례: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동정적 태도

우여우즈샹(烏有之鄉, wyzwxk.com)은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학술을 통해 국가이익 및 인민의 이익에 대한 복무를 원칙으로 삼으며, 마오쩌둥주의만이 중국의 미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이트 소개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 개혁개방이 초래한 부정적 결과로서 사회 부패, 양극화, 국유자산 유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마오쩌둥 좌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이트라 할 수 있다.²⁰ 마오주의에 입각하여 과거 중국 혁명 및 사회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입장을 표방하기에 우여우즈샹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전통적인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 존중과 옹호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이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정통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난 중국과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정통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북한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분배 등의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은 현재의 중국을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이들이 마오주의 좌파의 시각에서 현재의 중국에 대해 갖는 불만은 북한이라는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화된 거울에 투영되어 한층 더 강화, 증폭되는 셈이다.

개방적인 게시판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타 인터넷 토론 사이트와 달리, 우여우즈샹은 시사, 경제, 국제, 사조, 역사, 논쟁(爭鳴), 이벤트(活動), 심층연구(深度研究) 등 섹션별로 주로 기명 칼럼 형식으로 게시물을 배치하고, 토론은 주로 댓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종의 인터넷 잡지(網刊) 형식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이 사이트의 ‘논객’들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의 결과물이라는 반제국주의적 인식을 내세운다. 따라서 북한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 역시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정당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²⁰ <https://baike.baidu.com/item/%E4%B9%8C%E6%9C%89%E4%B9%8B%E4%B9%A1/8564539>
(검색일 2017. 7. 10)

우여우즈샹의 북한에 관련된 게시물 가운데는 한국전쟁 당시의 혈맹관계 및 마오 시대(개혁개방 이전)까지의 중국과 북한 사이의 역사적 우의를 강조하는 내용 역시 빈번히 등장한다. 이들은 또 현재 북한이 보이는 각종 난맥상에 대해서도, 그 주요 원인을 1990년대 말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소련 및 중국에 의해 북한이 버림받게 된 사태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바람직한 대응 역시,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의 전략적 완충지로서 북한의 중요성을 고려해서라도 중국은 결코 북한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여우즈샹은 다양한 성향과 입장의 논객들이 모이는 텐야와 달리 상대적으로 단일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이용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공간이고 인터넷 잡지를 표방하기에 게시물의 등록도 편집자를 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시물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유사하고 일관된 논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여우즈샹의 경우 여러 게시물 가운데 사이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시물을 선정하려는 노력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의 그것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3월 10일 게시된 ‘一息尙存’라는 아이디의 이용자가 “대북 제재와 일부 중국인의 국민성(制裁朝鮮與某些中國人的國民性)”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²¹은 우여우즈샹의 이러한 성향을 적절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필자는 서두에서 당시 자유주의 성향의 사이트 공스왕(共識網 www.21ccom.net)²²에서 북한 제재 참여 문제에 관해 벌인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그 설문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다. 공스왕의 설문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이 한·미·일과 공동보조를 취해 경제원조를 중단하고 북한과 선을 긋는 방안. 둘째, 일정 수준에서 제재하되 원조 등은 지속하여 비공식적 영향력 유지 및 내부 변혁을 촉

²¹ <http://www.wywxwk.com/Article/shiping/2016/03/360024.html>(검색일: 2016. 12. 30)

²² 공스왕은 앞서 소개한 잡지 『링다오저』의 자매 미디어로 오프라인 잡지의 온라인 확장판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홍콩에 근거지를 둔 피닉스TV와도 같은 계열에 속한다.

진하는 방안. 셋째, 제재에 불참하는 대신 경제원조는 중단함으로써 한·미·일의 책임 추궁을 피하는 방안. 넷째, 제재 불참 및 북한에 대한 우호적 입장 표명, 전면적 협력과 대화 시도. 다섯째, 기타가 그것이다.

이상의 설문에 대해 1,299건의 네티즌 투표 결과 1번을 선택한 설문참여자 수가 1,039표(79%, 1위), 2번이 196표(15%, 2위), 4번이 3위(28표, 2%)를 차지한 것에 대해 윗글의 필자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찬성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북한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자신들과 정반대 입장이라 할 소위 ‘자유주의’ 성향의 논자들이 북한을 “역사적으로는 외적이 중국을 침략하는 데 북한이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으며 “현실적으로는 소국 북한이 감히 미국에 공공연하게 대들어서 중국에 문젯거리를 안겨주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판한다.

이상과 같이 북한에 대한 동정적 시각에 입각해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비난하는 주장은 우여우즈샹의 다른 게시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4월 20일 ‘梅花欢喜漫天雪’이라는 사용자²³가 게시한 “결코 북한이 또 하나의 베트남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切莫让朝鲜成了越南)”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현재 북한에 대한 압박이 과거 베트남과의 관계 악화의 역사적 경험을 또 한 번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북(조)관계는 과거 중월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지에다 형제를 더한 정도거나 심지어 그 이상”의 관계였으며, 이러한 역사적 우의는 “중조, 중월 인민들의 피와 바꾼 것”임을 강조한다. “조선(북한)은 국공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의 동북지방 근거지 건설 당시부터 요심 전역(遼西-沈陽 전투) 시기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요 무장역량 몇 개 사단을 중국공산당의 지휘에 조건 없이 배속시킴으로써 중국인민의 해방 사업에 참가했고, 이 병력은 향후 임표가 이끄는 제4야전군과 더불어 하이난(海南島)에까지 이르렀으니, 중국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이들(북한)의 도움으로 중국의 절반이 해방된 셈”이라는 것이다.

소위 ‘북한포기론’이 자유주의적 입장의 논자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들

²³ 글 말미의 “石台中学张新国”라는 서명을 통해 게시물 작성자가 안후이(安徽)성 남부에 위치한 스타이(石台)현의 중등학교 교원이며 게시자의 실명이 장신귀(张新国)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의 북한옹호론은 자유주의 비판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우여우즈샹의 주요 논객 가운데 한 사람인 리양(黎陽)은 2016년 8월 29일 발표한 “‘공공지식인’의 공덕: 대북 제재 참여가 사드 배치로 돌아오다(公知的“贡献”: 制裁朝鲜, 换来了“萨德”)”라는 글²⁴에서 그간 북한제재론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 즉 서구적 보편가치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이른바 ‘공공지식인(公知)’으로 자처해온 이들이야말로 한국의 사드 배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글에서 반복 여론을 주도한 바 있는 런민대학 정치학과 교수 장밍(張鳴)의 주장들, 즉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조직적으로 대중 마약 판매에 나서 동북지방이 마약류의 집산지 가 되고 있다”(2013), “사실 지금 북한이 가장 적대시하는 대상은 중국인이다”(2015) 등의 사례를 적시하면서 이 같은 주장의 유포가 중국의 대북한 제재 참여 여론의 확산으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중국을 방문해서 가는 곳마다 중국어 실력을 자랑하고, 그토록 ‘화기애애’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 중국의 무수한 ‘공공지식인’을 설레게 했던 ‘박근혜 누님(朴大姐)’이 어떻게 이토록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되었는가”라고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함으로써 북·중 관계는 이제 더는 굳건한 동맹이 아님을 대외에 공포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한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일각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 변화를 두고 ‘배신’이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느니 하고 뒤늦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본래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에 있으며 한국의 대중 외교 목표의 핵심이 애초에 북·중 동맹관계를 무력화하는 데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불만 표출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의 이념적 동질성과 결속력이 강한 우여우즈샹 사이트의 특성상 동의와 지지를 표명하는 의견(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²⁴ <http://www.wywxwk.com/Article/shehui/2016/08/370211.html>

IV. 결론에 대신하여: 북한 및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인터넷 담론 지형

중국의 정치적 조건 속에서 인터넷 공간은 일정한 폐쇄성이 존재하는 여타 미디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개방성과 솔직성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홍규, 2013: 369-370). 중국 정부가 오프라인 미디어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검열에 대해서도 온라인 미디어는 제약이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며,²⁵ 온-오프라인을 두루 망라하여 획득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공, 재편집하여 단시간에 폭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력 또한 구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소통의 범위를 확장하는 이상의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료적 명령체계를 대체하는 다중의 집단지성이 조직화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토론되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의 종합과 재구성 그리고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인터넷 공간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먼저 그 정보와 논의내용의 깊이라는 차원에서 평범한 대중적 수준에서 전문가적 수준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에 관한 인식, 태도와 관련하여 반복한-중립-친북한 성향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III절 2항에서 살펴본 목에서의 논의 사례, 즉 ‘고사포 처형’, ‘북한 관광 필수 유의사항’ 등의 이슈가 대중의 눈높이 수준에서 말초적 흥미나 실용적 관심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사례를 대표한다면, III절 1항과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텐야 및 우여우즈샹 사이트에서의 논의는 북핵 문제에 관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 사이의 이 같은 차별성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각 사이트의 주된 이용자층을 이루는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관심사 혹은 성향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전자의 흥미와 실용적 관심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에 대한

²⁵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에 가해진 제약의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중국 인터넷 토론 공간에 부여된 자유는 ‘새장 속의 자유’로서 이 속에서 생산되는 여론 역시 ‘통제와 자유의 공존’이라는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통해 관리되는 여론으로서의 제한성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이민자, 2013).

접근은 개혁개방 이후에 출생, 성장하여 이념 문제에 관심이 낮으며 탈이데올로기, 탈정치화적 성향이 강한 ‘80후’, ‘90후’²⁶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면, 텐야, 우여우즈샹 등 후자의 사례는 사회주의적 과거에 대한 향수, 냉전적 진영 논리에 입각해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시각(우여우즈샹의 사례) 혹은 탈냉전 시기 확대된 민족주의적 관심 속에서 국제문제에 대한 국익 중심의 탈이념적·실용적 접근 성향(텐야의 사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세대별 성향 차이를 절대화하기 곤란한 면도 존재한다. 징뤄에왕(經路網, jingluoecn.com)은 80후와 90후에 속하는 젊은 세대가 운영진의 주축을 이루는 토론 공간인데, 여기서 발견되는 정치 및 국제 문제에 대한 열렬한 관심은 이들 세대가 단순히 말초적 흥미나 실용적 관심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세대론적 편견을 무색하게 한다. 한편 인터넷에서 공산당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을 일컫는 ‘우마오당’²⁷이나 민족주의 정서를 거리낌 없이 표출하는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편칭’²⁸ 등의 인터넷 유행어에서도 정치적·국가적 이슈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젊은층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의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낙후, 폐쇄성과 통제체제 등 한국이나 서구의 시각에서 북한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도 대체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우즈샹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북한을 다소 낭만화, 이상화하는 견지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 사회주의 시대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기아와 독재 등의 불안정한 체제, 인터넷 등 외부와의 접촉이 통제되는 고립된 사회로 북한을 인

²⁶ ‘80후’ 및 ‘90후’는 각각 80년대 및 90년대 출생자를 가리키는 중국식 세대 명명법이다.

²⁷ 댓글 하나당 인민폐 0.5위안(5毛)을 받는다고 하여 ‘五毛黨’으로 불린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쯔간우(自乾五)’라는 용어도 널리 쓰이는데, 스스로(自) 전투식량(乾糧)을 마련하여 ‘五毛黨’ 활동을 하는 사람, 즉 돈을 받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정부에 유리한 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에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네티즌의 한 부류를 가리킨다.

²⁸ 편칭은 ‘憤青’, 즉 ‘분’노를 표출하는 ‘청’년 세대를 가리킨다. 앵그리 영맨(angry youngman)의 중국어 번역에서 기원했으나 중국 인터넷에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성향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인식은 종종 북한에 대한 노골적 폄하, 예컨대 삼대에 걸친 권력 세습 문제나 북한 최고통치자의 외모(두발, 비만 등) 등에 관한 직설적인 비하로 여과 없이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행위는 비교대상으로서의 북한을 통해 개혁개방 이래 경제성장과 사회적 다양성의 확대 등 중국의 발전상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갖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자긍심 고취가 현재 중국이 처한 갖가지 난제들, 빈부, 지역, 도농 삼대 격차의 확대, 성장동력의 둔화, 소수민족 문제 등을 직시하고 극복하는 데는 그리 큰 유효성을 갖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단순히 ‘가난한 친척’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불안을 조성하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탈북자들의 범죄 사례나 이들을 통한 마약 확산 우려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러한 ‘위험한 이웃’론의 등장은 북한의 핵 개발이 북한에 인접한 국경 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차원의 안전문제와 결합되어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정당화하는 여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²⁹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반론과 저항이 존재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예컨대 III절에서 소개한 몹이나 즈후 등의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공유되고 있는 북한 관광 체험담은 북한을 여행한 경험을 통해 널리 유포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검증하고 교정하는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북한과 관련된 정보의 편향성을 집단지성의 작동을 통한 균형장치의 작동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 여행 체험자들은 관광 개방 초기에 엄격했던 북한 당국의 핸드폰, 카메라 등의 소지 금지가 완화되면서 자신이 체험한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또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북한사회의 과장되어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일정하게 바로잡는다. 이들이 올린 관광 가이드, 버스기사, 안전요원, 호텔 및 레스

²⁹ 중국의 연구자는 핵오염 가능성에 관한 중국의 대응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동북3성과 산둥성 등지의 무려 34곳에서 핵물질 측정을 진행하면서, 북핵실험이 물리적으로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 핵이 중국에 직접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진징이, 2016)

토라의 복무원, 관문점 등 방문지의 경비원, 군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의 기념 사진이나 교류 경험은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결국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킨다. 예컨대, 가짓수가 적지 않은 북한 관광의 만찬 메뉴 사진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에 관한 과도한 선입견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자신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출입한 카페, 바, 카지노 등의 사진을 통해 북한에도 서구적 소비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관광지에서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해 인민폐를 현지 화폐로 환전한 경험이라거나 심야에 호텔을 벗어나 별다른 제약 없이 평양 시내를 돌아다닌 에피소드는 북한사회가 폐쇄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상당 부분 과장된 ‘상상’의 산물임을 자연스럽게 유추하게 만들어주는 식이다.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북한을 우호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우여우즈샹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이들은 북한을 부정적으로 중국 인터넷 이용자 일반의 시각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중국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잃어버린 ‘어떤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장소로서 북한을 이상화, 낭만화하는 경향을 띤다. 여전히 의료와 교육이 무상 제공되는 북한을 사회주의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교육, 의료 등에 적용되어온 사회주의적 복지가 시장주의적 민영화로 대체된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현실을 비판하는 식이다. 이처럼 이념적 향수(鄉愁)의 대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자세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도 이어져, 북한의 핵 개발을 강자의 압박 앞에서도 민족적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위권 행사’에 견결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들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낭만화와 이상화가 또 다른 반론을 불러오는 것 역시 당연하다. 대중의 북한관이 경제적 낙후나 폐쇄적 정치체제 등 현재의 북한에서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부정적 면모를 발견하는 회고적 이해에 경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을 중국의 국익에 대한 하나의 실체적 위협으로 보는 현실적 시각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고집이 핵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를 무너뜨리는 한편, 미국에 대결적 자세 고수가 동북아 정세 불안 가중으로 이어져 중국 주변에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

고 있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위협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중국 정부의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비난 성명에 이어 푸단대학 선딩리(沈丁立), 베이징대학 자칭궈(賈慶國) 등 민간의 전문가들이 북한에 강경한 조치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이정남, 2014).

II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렌구이, 덩위윈, 양권핑 등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일련의 논의는 북한을 하나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주장하며(장렌구이), 궁극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을 포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덩위윈, 양권핑). 이러한 목소리의 등장은 결코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북한 및 북핵 문제에 관해 당과 정부의 공식적 방침과는 별개의 다양한 논의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온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이 체제를 인정받기 위한 대미협상용이 아니라 핵 보유 자체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장렌구이의 분석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더는 전략적 자산이 아닌 짐 보따리에 불과하다는 덩위윈과 양권핑으로 이어지는 주장은 중국 내에서 축적, 확산되어온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제 문제에 있어 전략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북한을 글로벌한 보편가치의 훼손자로 보는 이 같은 인식은 중국 내 문제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보편성을 옹호하고 공산당의 정치적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입장에 의해 뒷받침되어³⁰ 우여우즈샹의 사례가 대표하는 좌파적 시각과 날카로운 이념적 대립 국면을 연출한다. 북한을 사회주의 혁명의 교리에 충실한 반미, 반패권주의의 구현자로 보는 우여우즈샹의 논자들은 소위 자유주의 진영에서 내세우는 글로벌한 보편성을 띠는 가치(서구적 인권 관념, 민주주의, 개방경제)를 부정하는 한편, 개혁개방이 초래한 부정적 현상들을 마오쩌둥 시대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회복을 통해 타개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와 마오주의 좌파의 양 진영은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기

³⁰ 중국의 정책전문가들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중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지도를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유적 입장을 대변하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관련 학계 내부에서 ‘전략주의자’로 지칭된다(김지영, 2016).

보다 각자의 이념적 지향을 투사하여 북한 문제를 사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³¹

이상의 양극화된 태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의 예로 텐야의 논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텐야 자체가 특정한 이념적 지향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토론 공간으로서의 개방성이 강한 사이트이기에 위에서 언급한 마오주의 좌파적 시각이나 자유주의 내부의 강경파적 입장들 또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텐야 사이트를 비롯한 중국의 인터넷 토론 공간에서는 현상유지파에서 제한적 제재, 엄중한 제재 그리고 현실주의적 접근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들의 스펙트럼 안에서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III절 1항에서 검토한 사례를 비롯한 텐야의 상당수의 게시물은 중미 간의 패권 충돌이라는 글로벌한 시각변동을 전체 배경에 놓고서 북한 문제를 동아시아 지역구도의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중미 간 갈등의 하위범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구도에서 중국의 주도권 확보 및 대미협상력 강화에 필요한 카드로서 북한 및 북핵 문제가 갖는 실용적·도구적 의의가 강조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당사국들의 교섭이 존재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에 직접 접근하는 단일한 창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중국의 제재 참여 여부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과 별도로 필요시 북한의 정권 교체와 북핵 정밀 타격까지 배제하지 않는 과감한 개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중국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상기 게시물('zhaojwhr'란 이용자)의 주장은 중국 정부의 모호한 공식 표명에 익숙한 한국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채롭게 받아들일 법하다.

공개된 인터넷 토론 공간을 통해 중미관계와 동아시아 정세 등에 대한 거시적 판단과 상황 분석, 국익을 강조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접근 전략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문제에 관한 중국의 고려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가 북한 및 북핵 문

³¹ 이희옥은 우여우즈상으로 대표되는 대북지지론과 자유주의적 입장 가운데 강경파에 속하는 북한포기론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반대되나, 주장이 급진적이라는 점, 양자 모두 일정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 영향력이 떨어지며 중국 관방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이희옥, 2016).

제에 관한 중국의 반응을 대함에 있어 공식적인 것과 공개된 것에만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여 비공식적인 것, 그리고 내부적으로 토론되는 것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잠재적 카드의 존재를 자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투고일: 2017년 6월 13일 | 심사일: 2017년 6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17일

참고문헌

- 김지영. 2016. “중국 외교담론의 한국적 재구성: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3(2), 177-205.
- 이민자. 2011.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정치개혁』(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 이민자. 2012.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도전들.” 『신아세아』 19(4), 165-191.
- 이성현. 2014. “북핵의 ‘중국책임론’과 미국의 외교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39, 118-123.
- 이정남. 2014. “중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인터넷여론의 역할: 제3차 북한 핵실험을 중심으로” EAI 프로젝트 리포트, 1-23.
- 이흥규. 2013. “인터넷 시대의 중국 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영향.” 『중국학논총』 40, 355-390.
- 이희옥. 2016. “북핵을 보는 중국내 6개 관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7/2016010703474.html(검색일: 2017. 7. 8)
- 이희옥·박용국. 2013. “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대미이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37(3), 49-79.
- 임우경. 2008. “『색, 계』 논쟁, 중국 좌파 민족주의의 굴기(崛起) 혹은 위기.” 『황해문화』 59, 288-306.
- 전병곤. 2011.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국방연구』 54(1), 25-48.
- 주윤정. 2017. “‘신비의 나라’: 중국인의 북한 관광과 노스텔지어.” 『역사비평』 118, 253-277.
- 진징이(金景一). 2016. “북한의 ‘변화’와 북·중 관계.” 『성균차이나브리프』 38, 76-81.
- 최은진. 2013. “개혁개방 이래 중국 매체의 네트워크와 공공영역 형성.” 『중국과 중국학』

19, 107-131.

- 최은진·김판수. 2013.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규율기제: ‘텐야서취(天涯社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69, 23-42.
- 허진·원춘영·류샤오화. 2013. “중국 네티즌들의 반한 정서와 인터넷 민족주의: 텐야논단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7(4), 227-256.
- 趙立新. 2011. “20世纪90年代以来中国网络民族主义评析.” 『동북아문화연구』 27, 387-398.
- 張璉瑰. 2012. “朝鲜核问题与我国安全.” 『领导者』 第44期, 32-44.
- 張璉瑰. 2015. “朝鲜要什么, 你读懂了吗?” 『澎湃新闻』 2015. 8. 5. http://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360644(검색일: 2016. 12. 30)
- 楊俊鋒. 2014. “中国应放弃“负资产”朝鲜.” 『FT中文網』 2014. 7. 7.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7090>(검색일: 2016. 12. 30)

Abstract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Reflected in the Chinese On-line Debate Forum

Jeong Ho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official incorporation of China into the internet system in 1994, the internet has evolved as both an outlet and an organizational medium for differing views on a variety of social agendas. Within this space today,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represent a particularly hot topic. Discussions conducted on representative community sites such as Tianya, Mop, Wuyouzhixiang reveal key differences that reflect the primary orientations of these sites as well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user communities.

In the case of Tianya, whose major user group consists of the highly educated, discussions about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demonstrate a practical approach, with several examples revealing analytical depth and a degree of expertise regarding Sino-American relations and East Asian current affairs. Mop, which markets itself as a portal for entertainment-related news, features discussion threads that show post-ideological attitudes characteristic of the younger generation and negative views toward North Korea in general. Travel accounts and other personal experiences expressed by individual users, however, introduce diversity into the negative characterizations of North Korea, thereby functioning to correct the overall bias. Wuyouzhixiang, identified heavily with the Maoist Left, demonstrates a tendency to idealize North Korea by

projecting onto its society the lost socialist past of China.

Charting the discussions across these three internet communities, we can understand the range and variety of the internal Chinese debates about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examination further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paying adequate attention to unofficial and latent perspectives that animate the popular discursive space below the exposed plane of policy and diplomacy in our discussions with China on the subject of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Keywords | Nor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ese internet, discussion threads, Tianya, Mop, Wuyouzhixiang